

도시재생 뉴딜공모 국비 750억 확보

도, 시·군·관계기관 공조체제로 7곳 선정 돼 도시재생 국비 확보 누적 예산 1700억원 확보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올해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7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어 역대 최고규모인 국비 750억 원(총사업비 1,2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4면〉

앞서 올해 4월 국토부에서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고 공모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모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 전국 99개소의 공모사업이 확정, 전북도는 중앙 및 광역 선정 공모에 7개소가 확정되었다. 특히, 전국 경쟁을 통해 15개소를

선정하는 중앙 공모분에 전국 26개소 중 2개소(전주, 김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타 시·도 평균 2배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로 전북도의 적극적인 열정적인 행정력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전국 15개소를 선정하는 공공기관재안형은 전북도 정읍시·11개 군밀하게 협의하여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올해 도시재생 공모에서는 군(郡)지역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2017년부터 시(市)지역에서 군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처음 완주군이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선정되어 군지역도 도시재생의 불모지가 아님을 증명했다.

전북도는 2014년부터 추진중인 기존 37개 사업(전주, 군산, 남원)과 작년에 선정된 6개 사업(전주, 군산2), 익산, 정읍, 완주)에 올해 선정된 7개 사업 포함 누적 국비 확보액이 1,700억 원에 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에는 2023년까지 국비 750억 원, 지방비 516억 원 등 1,268억 원이 단계별로 투입되어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여부가 사업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수반되어야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선정된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재생을 넘어 전라북도가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서 인문학 강좌 인성교육 이뤄질 '심천학당' 개관

전북대학교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인성 교육 등이 이뤄질 '심천학당'은 30일 개관식을 갖고 합창 출발을 알렸다.

전북대 정문 인근에 한옥으로 건립된 심천학당은 전북대 교수로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한 심천 이강오 선생을 기리기 위한 후손들의 후원금으로 지난 해 9월 착공해 완공했다.

심천 이강오 선생은 1958년부터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한국사학과 한국철학을 강의하다 1985년 정년 퇴임 했다.

1967년 전북대에 '신흥종교연구소'를 설립 신흥종교 현장을 직접 사해 34여 단계를 13개 계통으로 분류했고 이와 관련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이 종교들을 지역별로 분류한 논문을 '한국민속조사보고서'에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신흥종교를 집대성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심천 이강오 선생의 자제로 5억 원의 건립기금을 기부한 이용재 전북대 재경동



전북대학교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인성 교육 등이 이뤄질 '심천학당'은 30일 개관식을 갖고 합창 출발을 알렸다.

창희장 학당 건립에 힘을 보탠 진주 강씨 별좌공파 지행당 종중, 양군의 명예교수(기계공학과) 등이 참석해 현판 및 공적비 제막식 등을 통해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심천학당은 전북대가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일환으로 짓고 있는 정문 인근 큰사립교육개발원 옆의 30명 수용 한옥 외관 강의실이다.

전북대 큰사립교육개발원(원장 김동

욱)은 9월부터(다산 정약용의 논어 읽기, 클래식 음악과 사람의 무늬) 등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심천학당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인성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구성원과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문화 강좌)의 공간으로 도 대체롭게 운영할 예정이어서 대학과 지역을 문화적 공감대로 있는 상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내일 종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은 도내 종장년 및 시니어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8 종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9월 4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다시 뛰는 내 일(my job), 희망찬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종장년과 시니어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박람회장에는 총 8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채용을 진행하는 50개의 채용관과 취업 창업 교육 등 컨설팅관 등 다양한 부대관 30개가 설치 운영 된다.

현장채용관(주)하림 정음공장 푸드위어 (주)사조화인코리아 등 도내 우수기업이 참여하여 총 249명의 채용을 목표로 현장면접이 이뤄진다. /김영태기자

文대통령 “헌법기관 시대적 사명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문해야”

“현재 30주년 원칙에 뿌리내릴수록 국민 신뢰 강해질 것 민주주의·인간존엄 향한 국민 염원… 변할 수 없는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헌법정신을 잇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현재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외에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가 갖는 위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념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그해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서 “국민 스스로 1948년 제헌헌법 이후 40년 동안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삶 속

으로 불러냈다”고 헌재 출범의 역사적 과정을 짚었다. 이어 “8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다”며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다.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없이 노력해왔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의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돼 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외수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열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아이들 먹거리 전북도가 책임진다’

이달부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무상우유급식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쌀 ‘상’ 등급 이상 ‘완전미’ 공급

전북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31억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과 초등학생 무상급식유유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간식으로 공급되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사과, 배, 포도, 방울토마토·파프리카 등 과일·과채로 농산물 표준규격 상품(1등급) 이상의 지역 농산물이다.

전북도는 과일간식 원물 공급의 일원화 및 효율적인 원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난 22일 과실전문APC 2개소(장수거점APC, 남원APC)를 원물 공급처로 지정했다.

과일간식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고 시, 전북에 주소를 둔 적격업체가 1곳(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포함되어 있어 전북산 과일 관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와 과일간식 제공은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고 전하면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31억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과 초등학생 무상급식유유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간식으로 공급되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사과, 배, 포도, 방울토마토·파프리카 등 과일·과채로 농산물 표준규격 상품(1등급) 이상의 지역 농산물이다. 전북도는 과일간식 원물 공급의 일원화 및 효율적인 원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난 22일 과실전문APC 2개소(장수거점APC, 남원APC)를 원물 공급처로 지정했다. 과일간식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고 시, 전북에 주소를 둔 적격업체가 1곳(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포함되어 있어 전북산 과일 관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와 과일간식 제공은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고 전하면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은행 - 우정사업본부 핀테크 분야 MOU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달 30일 본점 9층 회의실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와 핀테크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체결은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에 전북은행이 참가하면서 이뤄졌다.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은 물론 해커톤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J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부터 핀테크 경진대회 및 해커톤 대회를 그룹 차원에서 개최해 왔으며 참가 업체들과 핀테크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다. /김영태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